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성 탐구: Q방법론적 접근

A Q-methodological Study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marriage by the Elderly

이영숙*·박경란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Yeong Sug Yi·Kyung Rhan Park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l University,
School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 and conduct a typological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remarriage by the elderly, employing Q-method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llege students strongly supported the opinion that remarriage relieves the elderly of loneliness, and that familial support is crucial for the remarriage to happen. They also rejected of the idea that the elderly would feel ashamed to remarr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s remarriage fell into three classifications: the progressively accepting type, the realistically accepting type, and the conservatively accepting type. Type 1, "progressively accepting type" enthusiastically accepts and supports the elderly's remarriage as a progressive and emotive relationship. The "realistically accepting type" holds the opinion that remarriage in later life is based on overcoming loneliness or satisfying attachment need rather than love. This typology believes that the elderly would not be equal as spouses, and would not be overly distressed by public perception. The type 3, "conservatively accepting type" believes that remarriage would be likely to strain the elderly's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that it will not be the beginning of a new independent life, but are generally accepting of the idea of remarriage in later life.

Keywords: Q-methodology, the elderly, remarriage, accepting type

I.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적인 관념에서 노인의 재혼은 어딘가 떳떳치 못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노년기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약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혼자된 노인 및 그 가족들이 이제 노후생활의 한 대처방

안으로 재혼을 수용하는 의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가족을 근간으로 한 노인부양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Kang, 2009).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 형태로의 변화는 과거 자녀동거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적 부양과 신체수발, 정서적 보호 등의 노인보호가 약화될 것임을 시사한다(Lee *et*

* Corresponding Author: Yeong 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6-2085
Email: ysyi@kunsan.ac.kr

al., 2010). 한 연구(Seok, 2009)에서도 노후부양 책임은 고령세대일수록 가족의무로,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 과 황혼이혼 등의 제 요인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의 절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Silverstein & Giarrusso(2010)는 현대 코호트에서 결혼생활의 붕괴는 보다 보편적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더욱 수용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통계청(2011)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19천명에서 7,607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수도 1,498천명에서 2,748천명으로 약 130만 명이 증가하였다. 셋째, 과거에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인들이 배우자 없이 지내야 할 기간이 길어졌다(Bae,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은 노년기의 결혼상태는 이들의 건강기능과 수명(Goldman & Wein, 1995; Manzoli *et al.*, 2007) 자살위기(Kposowa, 2000) 외로움(Peters & Liefbroer, 1997) 자아존중감(Shin, 2001) 우울증(Kim *et al.*, 2011) 생활만족도(Lee, 2010) 등 신체적·심리적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욱 중시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재혼은 명백히 여러 가지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만족스런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므로, 노년층의 성공적인 재혼적응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재혼 연구는 재혼자체에 대한 편견으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예: Kim *et al.*, 1997; Seo & Kim, 1996) 및 재혼영향요인(Bae, 2004), 다른 세대들의 노인재혼태도(예: Seo & Kim, 1998, Yang, 2004), 재혼한 노인들의 재혼과정과 적응(예: Choi & Lee, 2000; Lim, 1997; Lim & Park, 1997; Kim & Han, 1996; Park & Bae, 2005; Park & Lim, 1996), 그리고 노년기 재혼이 주관적 삶에 미치는 영향(Bae, 2002) 등이 고찰되어 왔으나, 이제까지 사회노년학에서 노인재혼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기본적으로 노년기 재혼이 성인 초기나 중년기의 재혼과는 욕구나 상황 등 그 성격이 다르므로(DMin & David, 1988), 노인의 안

정적이고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 이외에도 주변인들의 인식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볼 때 젊은 세대의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노인재혼과 관련될 것이며, 세대별 관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노인재혼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노인재혼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인의 주관성을 알아보는 Q방법을 적용하여 첫째, 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유형화하고 둘째,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기술·분석·설명하고자 한다. 사회가치관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과연 노년기 재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족복지의 측면에서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홀로됨과 재혼

오늘날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를 우선 시 했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부부관계를 더 중요한 관계로 여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전통적 직계가족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모하면서 모든 자녀를 출가시킨 후 부부만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 배우자의 사망 후 혼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노년기는 인생의 생활주기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로 발전되면서 건강약화, 은퇴, 자녀결혼 등과 같은 다양한 상실감으로 인해 사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년기의 홀로됨은 오늘날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년기 배우자 상실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보다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역할 수행의 어려움, 대화상실 및 정신적 의지의 상실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Kim *et al.*, 2011).

에컨대,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4,155 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탐색한 Lee(2010)는 결혼상태의 상대적 영향력은 모든 교육수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밝혔다. Jung과 Cho(200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배우자로 인한 외로움이 낮았으며, 이와 유사하게 Peters & Liefbroer(1997)는 현재 파트너 관계가 없는 여자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노인들보다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배우자 사별 노인은 다른 일반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Richardson, 2006)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자이존증감 및 생활만족도(Shin, 2001)는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남녀노인의 결혼 상태는 그들의 건강기능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Goldman & Wein, 1995). 즉 Manzoli *et al.*(2007)의 연구에서 노인의 결혼 상태와 사망간의 관계를 메타-분석(meta-analysis)한 결과, 몇 가지 방법론적 개념적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태가 노인의 수명에 중요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Kposowa(2000)은 기혼자들보다 이혼자들에게서 자살위기가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재혼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증한 연구들은 결혼 상태가 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Burksa *et al.*(1988)은 5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4-5년 이내에 재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15명과 재혼하지 않은 15명의 사별의 결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우울, 생활만족, 슬픔해결, 대처, 스트레스, 자존감,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에서 재혼한 피험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Coleman & Ganong, 1990)에서도 재혼한 여성이 홀로 있는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친구관계에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슬픔해소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eo & Kim, 1996). 국내연구에서, 55세 이상 사별남녀노인 11명 면접 조사한 Kim과 Han(1996)은 재혼 전에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 재혼으로 인해 감소 또는 해결됨으로써 사별노인들은 재혼 전보다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Bae(2002)도 재혼 노인과 무배우 노인을 비교한 결과 노인 재혼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 노년기 재혼에 대한 태도

노인 재혼은 노인당사자의 독자적인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고보다 자녀세대의 동의와 인정 및 지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Seo & Kim, 1998) 노인 자신의 재혼에 대한 태도와 함께 노인 주변인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아동기에는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다가 청소년기 이후 점점 부정적인 태도가 강해져(Lee, 1989), 젊은이들은 노인 세대보다 더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Kim, 2003; Park & Yi, 2001).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노인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04). 부정적 태도로 노인을 평가하면 노인을 차별하게 되고,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태도 그리고 노인차별주의 등은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Son, 2005). 또한,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수많은 노령 인구의 기회를 위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령인구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관련된 제반 기능과 역할에의 참여를 거부당하게 되므로 ‘노인문제’를 가속화시켜(Kim, 2004)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노인문제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노인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불평등을 약화 내지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요 변화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재혼 문제인데, 앞으로 사회구성원의 주축이 되는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 재혼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일례로, 홀로된 노인들의 재혼 태도는 성적 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여 성적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노인들의 재혼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경향인데(Bae & Park, 2002), 한 연구(Kim, 2002)에서 대학생들은 중년, 노년 집단보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재혼에 대한 성인 자녀의 태도가 부모 재혼의 결립률 혹은 촉진제 역할을 하며(Bae, 2004; Lee & Choi, 1997), 노인의 재혼한

죽도(Seo & Kim, 1998)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노인 재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자녀들의 노인 재혼 태도를 고찰한 Seo와 Kim(1998)은 첫째, 성인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재혼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둘째, 기혼자녀들은 노인재혼의 긍정적 측면으로 삶의 활기와 정서적 만족, 상호의지 및 독립된 삶의 의욕을 들었으며, 부정적 면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들은 계부모 자녀관계상의 어려움과 사망한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여성들은 재혼으로 인한 삶의 번거로움, 관계상의 적응, 법적인 갈등문제를 꼽았다. 셋째, 기혼자녀들은 건강, 경제력, 성격을 재혼 시 가장 고려해야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Kim(2001)의 연구에서는 홀로된 노인(30.9%)보다 그 자녀들(77%)이 노인재혼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명백히 성인자녀 세대는 노인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자신의 노부모의 재혼과 맞물려 고려할 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Seo & Kim, 1998) 양면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노인 자신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젊은이들의 노인(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45.9%)이기보다는 다소 긍정적(54.1%)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Bae & Park, 2002). 성별로는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재혼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었다. Bae(2004)의 연구에서도 남녀노인 모두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노인(83.1%)이 여자노인(71.9%)보다, 노인의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재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년기 재혼의 필요성은 노인인구의 구성 비율이 높은 무배우의 여성노인의 경우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자노인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유교적 관념이 남아있는 노인자신이나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 등 재혼에 대한 장애요소가 많다(Lim, 1997). Lee(2008)의 연구에서는 홀로된 노인들의 재혼 욕구는 높지만 실제 재혼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남녀노인 모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였고, 그 다음이 여성노인은 '자유의 제한', 남성노인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홀로된 노인들은 자신의 재혼보다 타인의 재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경향이었다(Choi & Lee, 1996). 무엇보다도 노인 세대는 보수적인 인식 등으로 자녀세대 보다 노인재혼을 스스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들의 재혼에 대해 자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Bae & Park, 2002)이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노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차이나는 태도는 세대별 살펴본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를 각 세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2005~2009) 사이에 60대($\Delta 7.0\%$)보다 30대($\Delta 13.2\%$)·40대($\Delta 14.5\%$)·50대($\Delta 18.0\%$)의 노인재혼 인식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찬성 태도(68.6%)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9). 노인재혼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에서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Yang, 2004), 청년과 장년층은 재혼찬성 이유로서 '동반자의 필요' 다음으로 '외로움'을 들고 있는 반면에 노년층은 '외로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재혼반대 이유에 대하여 청년층은 '새로운 부부관계의 적응문제'를 꼽은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혼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청년층은 '성격'을 지적한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공통적으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법적문제로 인한 재혼반대 시 동거의 형태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층은 '상황에 따라서', 장년층과 노년층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각 세대 모두 기본적으로 노년기 재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지만, 노인재혼의 찬성/반대 이유 등의 태도 면에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볼 때 같은 세대 내에서도 주관적 태도가 차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방법론적 연구이다.

1. Q표본의 구성

선행연구들은 노인재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현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어떠한 현상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제시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들어내도록 하게 하면 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Q의 방법론적 철학(Kim, 2008)을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기에 Q방법론을 선택하였다.

Q표본의 구성을 위해 특정한 이론적 구조의 틀 없이 비 구조화된 상태에서 노인재혼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 대중매체,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개방적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종합하여 310개에 이르는 Q모집단을 추출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술문의 범주화를 시행하였다. 노인재혼의 기능, 노인재혼 여건, 그리고 노인재혼의 결과(영향) 등 3개 구조를 중심으로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진술문을 부정, 긍정, 중립 진술문으로 재분장화 한 다음, 최종적으로 33개의 Q표본, 즉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부록으로 제시).

2. P-표본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은 P 모집단에서 추출된 실제 Q 소팅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응답자를 의미하며, Q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여 P-표본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표본의 수가 커지면 오히려 통계학적 문제를 갖게 되므로(Kim, 2008),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3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Q-분류 및 분석

효율적인 분류를 위해 P표본인 응답자에게 진술문이 인쇄된 카드를 제공한 후 진술문을 두 읽게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 각 진술문들을 동의(+), 중립(0), 비동의(-)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하도록 먼저 분류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분류되어진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안쪽으로 진행하여 중립 부분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Figure 1

참조].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분류하게 하였으며, 이때 양극에 놓여진(+4, -4) 2개씩의 Q 표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적 분석을 위해 응답자에게 채택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2011년 11월 9일에 수행하였다.

(most dislike)			← (neutral)			(most like)		
			→					
-4	-3	-2	-1	0	1	2	3	4
2	3	4	5	5	5	4	3	2

[Figure 1] Q sorting distribution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과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겐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와 전체적인 설명변량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하였다.

<Table 1> Eigen Values and Variances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	15.9372	1.9236	1.4358
Variance	0.4427	0.0534	0.0399
Total Variance	0.4427	0.4961	0.5360

IV. 연구결과 해석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수는 설명변량과 아이겐값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3개에서 결정될 수 있었다. 본 연구 첫 번째 요인의 설명변량은 44.27%이며, 두 번째 요인까지의 설명변량은 49.61%, 세 번째 요인까지의 설명변량은 53.60%였다. 요인 3개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s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0.772	0.592
Type 2		1.000	0.654
Type 3			1.000

〈Table 2〉은 본 연구의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가 통상적인 Q연구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은 노인 재혼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태도는 동질적이라는 전제로부터 유형간 해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런 결과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발견이다. 이 결과는 곧 합의 진술문(consensus item)이 많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의 합의 진술문은 전체 Q진술문 33개 중에서 무려 23개에 이른다. 따라서, 합의 진술문을 먼저 해석하고 그 성향을 파악한 이후에 3개 유형간 차이를 해석해야 효과적으로 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합의 진술문의 해석

먼저, 합의 진술문 현황은 〈Table 3〉와 같다. 합의 진술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의된 진술문은 노인이 재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진술문 24, $z=-1.73$). 이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재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합의 의견은 노인 재혼이 외로움, 삶의 무료함을 해소해준다는 의견이었다(진술문 3, $z=1.71$). 이는 P표본들이 노인 재혼의 의미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 번째 합의된 의견은 노인 재혼에는 자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진술문 26, $z=1.61$). 결국, P표본들이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는 1)노인이 재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거부감 2) 노인 재혼이 외로움, 삶의 무료함을 해소해준다는 의견과 3)노인 재혼에는 자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태도 등으로 요약된다.

2. 유형별 분석

이제 각 유형별 해석에 앞서, P표본들의 각 유형별 적재치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1) 제 1유형: 진보적 수용형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19명이었으며, 유형 1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의 z 값 차이〈Table 5 참조〉, 또 유형 1이 적극 찬성한 진술문들과 적극 반대한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P01은 「노인

〈Table 3〉 Statements and z-scores for consensus Items(over ± 1.00)

No	Statements (I think)	z-scores
3	remarriage is a cure for loneliness and tedium in later life.	1.71
26	the support of the children and the rest of the family is crucial to elderly remarriage.	1.61
2	remarriage gives the elderl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1.42
1	remarriage could be a fresh breath of life for the elderly.	1.42
4	the elderly are capable of falling in love.	1.35
25	society's attitude towards elderly marriage needs to be improved.	1.21
28	elderly remarriage puts family identity at risk.	-1.00
30	remarriage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when they get older.	-1.29
17	the elderly tend to settle for a common-law marriage rather than a legal marriage.	-1.35
24	the elderly would be embarrassed by marrying again at their age.	-1.73

〈Table 4〉 P sample's factor weight by type

Type	ID	Sex	factor weight
Type 1 (N=19)	1	M	2.2646
	3	M	1.2644
	4	M	1.6251
	5	F	1.1970
	6	F	.6547
	9	M	.4966
	13	F	.9562
	16	F	1.7452
	17	F	.6277
	20	F	1.1417
	23	M	.7152
	24	M	1.2942
	25	F	1.2765
	27	M	1.9203
	28	F	1.7538
	30	F	1.0730
	31	M	.7050
	32	F	1.4212
	35	M	.9879
Type 2 (N=11)	7	F	.9093
	10	F	.7482
	11	F	.5545
	12	F	.3573
	15	F	.8251
	18	F	.6151
	19	F	.8299
	21	F	1.0709
	29	M	.9978
	34	F	.9473
	36	M	.8884
Type 3 (N=6)	2	M	.8146
	8	M	.6681
	14	F	.8488
	22	M	1.0465
	26	F	.3841
	33	M	.8781

〈Table 5〉 Statements with which Type 1 agreed or disagreed more than other types(five each, according to size of differences)

No	Statements (I think ………)	z-scores	Means	Differences
5	elderly remarriage as a beginning of a new life.	1.260	-.340	1.600
9	the remarried elderly seem competent, cool, and confident to me.	.688	-.315	1.003
25	society's attitude towards elderly marriage needs to be improved.	1.844	.899	.945
15	spouses will be on equal footing in elderly remarriage.	.293	-.569	.861
11	elderly remarriage will become perfectly acceptable and normal.	1.130	.515	.615
14	family occasions will become complicated with elderly remarriage.	-.824	.026	-.850
20	adapting to new family relationships would be difficult in elderly remarriage.	-.623	.275	-.898
21	the idea of elderly remarriage is a foreign and uncommon concept.	-.237	.726	-.964
19	the disapproval of the children would make it hard for elderly remarriage to happen.	-1.025	-.015	-1.011
16	the elderly remarry more out of loneliness than love.	-.479	.807	-1.286

재혼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노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같은데서 보면 노인들의 사랑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들 또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으니깐요, 그로 인해 무료하던 인생이 다시금 핑크빛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하였고, P27은 “노인도 엄연한 사람이다. 또한 감정이 있고 느낄 수 있기에 비판할 입장은 없다. 노인도 사랑이 존재하고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강한 반대에 분류된 항목의 내용과 그 항목의 선택 이유를 서술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P01은 「노인은 사랑보다 외로움 때문에 재혼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처음처럼 그들은 사랑을 합니다. 정이 아닌 그들의 사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P27은 “아무리 노인이 외롭다지만 사랑이 아닌 정으로 결혼하는 것은 젊을 때든지 늙어서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의 전제조건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형 1의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기에도 남아있는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랑을 하는 노인들이 젊은 이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유형 1을 진보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2) 유형 2: 현실적수용형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11명이었으며, 유형 2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의 z값 차이 <Table 6 참조>, 또 유형 2가 적극 찬성한 진술문들과 적극 반대한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P 21은 「노인 재혼에는 사랑보다는 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적극 찬성한 이유로서 “노인이 되어 혼자 산다면 삶이 무료하고 슬플 것 같다. 재혼을 해서 배우자와 남은 생을 함께 즐기며 산다면 삶의 활력소도 되고 좋을 것 같다.”, P29는 “아직까지는 노인 재혼이 흔하지 않으며, 노인의 나이이면 사랑보다는 정에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고 답했다.

적극 반대한 진술문(「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사회적 시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에 P21은 “사랑하는 이와 재혼이다. 노인 재혼이 죄인가?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가족의 지지 아래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P29는 “노인이 재혼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만족하면 주위의 시각이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형2에 속하는 사람들은 노인재혼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실적인 여건

<Table 6> Statements with which Type 2 agreed or disagreed more than other types(five each, according to size of differences)

No	Statements (I think ………)	z-scores	Means	Differences
29	elderly remarriage is more out of bond than love.	.771	-.912	1.683
16	the elderly remarry more out of loneliness than love.	1.410	-.137	1.547
8	elderly remarriage promotes gaining independence from their children.	-.348	-1.059	.711
26	the support of the children and the rest of the family is crucial to elderly remarriage.	1.959	1.428	.531
3	remarriage is a cure for loneliness and tedium in the later life.	2.022	1.557	.465
23	the elderly need to be prudent in their decision to remarry due to health and economic problems.	.387	.910	-.523
30	remarriage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when they get older.	-1.668	-1.098	-.571
6	elderly remarriage causes discomfor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1.164	-.336	-.827
15	spouses will be on equal footing in elderly remarriage.	-.845	.000	-.845
33	the remarried elderly will experience distress as society will look down on them.	-.980	-.086	-.895

을 고려하는 점도 엇볼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젊은이와는 다르게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만이 아님을 인정하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노인이 재혼하는 것이 사회적 시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통하여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재혼의 의미가 부여되며 이는 이들의 태도에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런 이유에서 유형2를 현실적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유형 3: 보수적 수용형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6명이었으며, 유형 3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의 z값 차이<Table 7 참조>, 또 유형 3이 적극 찬성한 진술문들과 적극 반대한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P 22는 「노인이 재혼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적극 찬성한 이유로서 “노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재혼하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이며 노인들의 아들 딸들은 이미 나이가 좀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이 어색할 것이다.”, P33은 “자식들이 보기에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혼을 함으로써 식구가 더 늘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 불분명하게 이뤄질 것 같았기 때문에.”고 답했다.

적극 반대한 진술문(「노인 재혼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에 P22는 “내 생각에 노인은 사

랑보단 정 때문에 재혼하는 것이라 본다.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노인의 재혼은 독립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더 챙겨주어야 한다.”, P33은 “노인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독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형3에 속하는 사람들은 노인재혼을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건일 뿐이며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유형3도 유형1이나 유형2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혼을 수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런 이유에서 유형3을 보수적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노년기 재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젊은 세대의 인식은 직, 간접적으로 노인재혼과 관련될 뿐 아니라 세대별 관념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주관적 태도를 고찰하여 노인 재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에 의해 유형을 분류해보

(Table 7) Statements with which Type 3 agreed or disagreed more than other types(five each, according to size of differences)

No	Statements (I think ………)	z-scores	Means	Differences
6	elderly remarriage causes discomfor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439	-1.137	1.576
20	adapting to new family relationships would be difficult in elderly remarriage.	.921	-.497	1.417
21	the idea of elderly remarriage is a foreign and uncommon concept.	1.215	.000	1.214
22	family roles will become ambiguous with elderly remarriage.	-.038	-.992	.954
2	remarriage gives the elderl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1.910	1.175	.735
1	remarriage could be a fresh breath of life for the elderly.	.947	1.649	-.702
9	The remarried elderly seem competent, cool, and confident to me.	-.574	.316	-.890
29	elderly remarriage is more out of bond than love.	-1.043	-.005	-1.038
8	elderly remarriage promotes gaining independence from their children.	-1.720	-.373	-1.347
5	elderly remarriage as a beginning of a new life.	-1.461	1.020	-2.481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진술문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는 23개의 합의 진술문이 말해 주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는 본질적으로는 동질적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은 노인재혼에 대해 상당히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노인재혼태도에 답한 23개의 합의진술문 가운데 대학생들이 첫 번째로 가장 높게 일치한 태도는 「노인이 재혼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에 대해 비동의한 것이다. 이는 최근 노년기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다는 선행연구(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9)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노인이 재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제까지 노년기 재혼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나 노인의 성과 사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에게 대해 갖게 되는 편견, 즉 연령차별주의에 기인한 것이었다(Bytheway, 1995). 그러나 최근 평균 80세 이상을 사는 노인의 모습이 결코 과거와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사별 외에도 이혼의 결과로 혼자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재혼을 상속에 기여하는 요인은 여러 요소 가운데 무엇보다도 노인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들의 긍정적인 태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재혼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비난이 감소한다면 노인들은 자신의 재혼을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Vinick, 1978). 그 다음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강한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노인 재혼이 외로움, 삶의 무료함을 해소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태도는 Yang(2004)의 연구에서 청년층은 노년기 재혼의 찬성 이유로 ‘동반자의 필요’ 다음으로 ‘외로움’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Seo & Kim, 1996) 및 재혼한 노인(Kim & Han, 1996)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인의 재혼은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고독과 깊게 관련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미래노인 세대에서는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노인이 홀로됨으로써 경험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고통스러운 외로움으로 발전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의견일치가 높은 진술문은 「노인 재혼에는 자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노인 재혼에 자녀와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Bae, 2004; Lee & Choi, 1997)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합의 진술문 중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세 진술문들은 노인 재혼에 대한 수용도, 기능, 그리고 적응면을 진술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노인재혼에 대해 갖는 태도의 주요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재혼을 수용하는 정도 및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재혼의 기능, 그리고 재혼의 적응을 위해서 자녀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들이 재혼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의 태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노인 재혼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유형 즉 진보적 수용형, 현실적 수용형, 보수적 수용형으로 분류되었다. 대학생들은 노인재혼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적 수용자’(유형1)들은 노인재혼을 새로운 인생출발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용, 지지한다. 반면에 ‘현실적 수용자’(유형2)들은 노인 재혼을 사랑보다는 정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것이며 노인 재혼의 부부관계가 평등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혼노인이 사회적 시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보수적 수용자’(유형3)들은 기본적으로는 노인 재혼에 수용적이지만 노인 재혼이 자녀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며 독립적 삶을 위한 계기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3가지 유형가운데, 진보적 수용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보수적 수용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진술문의 내용과 함께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노인재혼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노년층이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Yang, 2004)인데, 바람직한 노년기의 재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인자녀 및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 유형2의 현실적 수용자들의 노인재혼부부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유형3의 보수적 수용자들의 노인재혼적응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학생들의 인식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비록 노인재혼이 숫자적으로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노년기 재혼이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노년기 재혼은 그 어느 시기의 재혼보다 적응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재혼생활의 부적응시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삶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늘날의 노인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해졌으며, 교육수준도 향상되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점차 하나의 단일특성을 보이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될 것이다(Lee *et al.*, 2010).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갖는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이제까지의 많은 노인재혼이 어쩔 수 없는 노인형편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과는 달리 점차적으로 노후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재혼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재혼을 바라다볼 수 있는 교육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인재혼을 노년기 삶의 한 방식으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노인세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부는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 Han *et al.*(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더불어 가족, 특히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사회의 일반적인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홀로된 노인 당사자보다 그 자녀들이 노인 재혼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Kim, as cited in Bae, 2004), 실제로 자신의 노부모의 재혼과 맞물려 고려할 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Seo & Kim, 1998)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이 자신의 조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개인 가족 내 조부모나 노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일반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와 비교 고찰하

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노인재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인별로 비교한 연구도 요망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Q방법, 노인, 재혼, 수용유형

REFERENCES

- Bae, J. H. (2002). The impact of remarriage in old age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Bae, N. R., & Park, C. S. (2002). The effect of the sexual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on the attitude toward remarriage singl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11-132.
- Bae, J. H. (2004). Factors affecting remarriag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5, 211-232.
- Burksa, V. K., Lunda, D. A., Gregga, C. H., & Bluhma, H. P. (1988). Bereavement and remarriage for older adults, *Death Studies*, 12(1), 51-60.
- Bytheway, B. (1995). *Age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hoi, Y. A., & Lee, C. D. (1996). Study on the sexual awareness and remarriage of the single age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4(6), 207-220.
- Choi, Y. A., & Lee, C. D. (2004).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II: Emphasis on old age life of remarried people in Chonju a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5(2), 87-108.
- Coleman, M., & Ganong, L. H. (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198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DMin, B. K-J., & David, H. (1988). Remarriage and the Elderly, *Journal of Religion & Aging*, 3(3-4), 1-11.
- Goldman, N., Korenman, S., & Wein, R. (1995). Marital status and health among the elderly. *Social Science & Medicine*, 40(12), 1717-1730.
- Han, J. R., Lee, G. Y., Won, Y. H. (2006).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attitude between the youth and the elderly: On the basis of co-orientation model and IP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6(2), 381-402.
- Jung, T. Y., & Cho, E. Y. (2005). An examin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lonelines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aged: With focus on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55-71.
- Kang, S. K. (2009).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2), 629-643.
- Kim, E. J., Seo, B. S., & Cho, E. K. (1997). A Study of the Single Elderly's View on Remarri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11.
- Kim, H.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Inc.
- Kim, K. T.(2002). A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cial groups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Unpublished Ph D. thesis, Daejeon University, Korea.
- Kim, M. A. (200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valuative Attitudes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with the Terms for Those aged 60 and ov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1). 149-167.
- Kim, S. H. (2001). A Study on the attitudes of older persons and their adult children toward the remarriage of elderly. Unpublished master thesis, Kangnam University, Korea.
- Kim, S. Y., Kim, S. G., & Seo, H. J. (2011).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widowhood: Testing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165-196.
- Kim, T. H., & Han, H. S. (1996).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bereaved old peopl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6(1), 18-38.
- Kim, W. (2003). An Exploratory Study on Ageism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21-35.
- Kim, Y. J., Kang, I., & Lee, C. S.(2004). A study o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65-75.
- Kposowa, A. J. (2000). Marital status and suicide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4, 254-261.
- Lee, C. D., & Choi, Y. A. (1997).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I : Emphasis on old age life of remarried people in Chonju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2), 255-272.
- Lee, H. S. (2008). The study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emarriage desire of the single elderly. Unpublished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Korea.
- Lee, J. U. (2010).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S. Korea: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3), 709-726.
- Lee, S. J.(1989).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through the study of psycholog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9, 79-91.
- Lee, Y., Jeong, K., Yeum, J., O, Y., You, H., Lee, U. (2010). Analysis and projection of changes in the lives of elderly Korea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im, C. H. (1997). The elderly men's adaptation to

- remarried family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7(2), 119-138.
- Lim, C. H., & Park, K. R. (1997).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married elderly's stress and adaptation to stepfamily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83-200.
- Manzoli, L., Villari, P., Pirone, G. M., & Boccia, A. (2007).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77-94.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ocial Survey.
- Park, C. S., Bae, N. R. (2005). A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2), 115-132.
- Park, K. R. & Yi, Y.S. (2001).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2), 71-83.
- Park, K. R., & Lim, C. H. (1996). Remarried elderly: The process of remarriage and the changes in their lives. *Inje Journal*, 12(2), 657-684.
- Peters, A., & Liefbroer, A. C. (1997). Beyond marital status: Partner history and well-being in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687-699.
- Richardson, V. E. (2006). Widowhood. In R. Schulz, L. S. Noelker, K. Rockwood, & R. L. Sprott(4th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pp. 1226-1230). NY: Springer Publishing Co.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9). Rural Life Indicator Survey.
- Seo, B. S., & Kim, E. J. (1996). The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remarriage of old widow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6(2), 53-66.
- Seo, B. S., Kim, H. K. (1998). A study on married adult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lderly remarriag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1), 91-106.
- Seok, J. E. (2009).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163-191.
- Shin, H. S. (2001). Self-esteem,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according to the spouse's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6), 1119-1128.
- Silverstein, M., & Giarrusso, R. (2010). Aging and Family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039-1058.
- Son, D. S. (2005). The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4), 205-217.
- Vinick, B. H. (1978). Remarriage among the elderly: Present and future.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Sociological Society, Philadelphia.
- Yang, O. (2004). Comparison of Attitudes Regarding the Elderly's Remarriage between Generations. *Proceedings of the 2004 Fall Conference*,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18-130.

접 수 일 : 2012. 06. 05.

수정완료일 : 2012. 06. 29.

게재확정일 : 2012. 08. 13.

<부록>

번호	진술문
01	나는 “노인 재혼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I think remarriage could be a fresh breath of life for the elderly.
02	나는 “노인 재혼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준다”고 생각한다. I think remarriage gives the elderl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03	나는 “노인 재혼은 외로움, 삶의 무료함을 해소해준다”고 생각한다. I think remarriage is a cure for loneliness and tedium in the later life.
04	나는 “노인도 사랑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e elderly are capable of falling in love.
05	나는 “노인 재혼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I perceive elderly remarriage as a beginning of a new life.
06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causes discomfor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07	나는 “노인 재혼은 자식에게 부담부담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imposes more economic burden on their children.
08	나는 “노인 재혼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 view elderly remarriage as gaining independence from their children.
09	나는 “재혼한 노인이 능력 있고, 멋있고,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The remarried elderly seem competent, cool, and confident to me.
10	나는 “노인 재혼은 수명연장, 건강유지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will be a means to life span extension and health maintenance.
11	나는 “노인 재혼이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will become perfectly acceptable and normal.
12	나는 “노인 재혼이 노후부양 대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could provide the support needed in the later life.
13	내가 생각할 때 “노인 재혼에서는 부부관계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 I think adapting to new marital relationship would be difficult in elderly remarriage.
14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가족 행사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한다. I think family occasions will become complicated with elderly remarriage.
15	나는 “노인 재혼에서는 부부관계가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spouses will be on equal footing in elderly remarriage.
16	나는 “노인은 사람보다 외로움 때문에 재혼한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elderly remarry more out of loneliness than love.
17	나는 “노인 재혼은 법적 결혼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elderly tend to settle for a common-law marriage rather than a legal marriage.
18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가족의 범위가 확대 된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expands the family.
19	나는 “노인 재혼은 자녀들의 반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disapproval of the children would make it hard for elderly remarriage to happen.
20	내가 생각할 때 “노인 재혼에서는 가족관계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 I think adapting to new family relationships would be difficult in elderly remarriage.
21	나는 “노인 재혼은 아직 생소하고 낯설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idea of elderly remarriage is yet foreign and uncommon.
22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가족역할이 모호해진다”고 생각한다. I think family roles will become ambiguous with elderly remarriage.
23	내가 생각할 때 “노인 재혼은 건강, 경제문제 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다. I think they need to be prudent in their decision to remarry due to health and economic problems.
24	나는 “노인이 재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e elderly would be embarrassed of marrying again at their age.
25	나는 “노인 재혼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society's attitude towards elderly marriage needs to be improved.
26	나는 “노인 재혼에 자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support of the children and the rest of the family is crucial to elderly remarriage.
27	나는 “노인 재혼에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financial security is important to elderly remarriage.
28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가족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puts family identity at risk.
29	나는 “노인 재혼에는 사랑보다는 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is more out of bond than love.
30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늙어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 I think remarriage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when they get older.
31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성 욕구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I think remarriage will satisfy the elderly's sexual needs.
32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재산문제 등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I think elderly remarriage will cause legal problems regarding property and the like.
33	나는 “노인이 재혼하면 사회적 시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remarried elderly will experience distress as society will look down on them.